

보건복지 제466호 (2026-07)

ISSUE & FOCUS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발행일 2026. 5. 18. ISSN 2092-7117

2025 APEC 보건 분야 회의의 성과와 의미¹⁾

백주하

건강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한국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경제체로서 보건 분야에서 두 차례의 보건실무그룹(HWG) 회의와 제15차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HLMHE15)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 팬데믹, 정신건강, 디지털헬스와 같이 기존에 논의해 온 주제들을 포함하였고, 인공지능(AI) 활용,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장애인 건강과 같은 새로운 의제를 추가하였는데, 한국의 정책 경험과 사례들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음.
- 회원경제체 간 논의를 바탕으로 장관 공동성명문 채택을 이끌어 내고 HWG 의장경제체로 선출된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및 기여 확대를 보여 준 성과로 평가됨.
- 회의 개최를 통해 양자 및 다자 간 보건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음. 한국의 혁신 사례들이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게 된 것은 의미 있는 결과임.
- APEC HWG 의장경제체로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실행 가능한 성과로 구체화하고 '2026-2030 APEC 전략계획'에 반영하며 국제협력, 인적 네트워크 확대, 국내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0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 분야 회의 개최

- ◆ 2025년 한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의장경제체로서 보건 분야에서 보건실무그룹(HWG: Health Working Group) 회의와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HLMHE: High-Level Meeting on Health and the Economy)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1) 이 글은 백주하, 박나영, 김은정, 신지영, 박수정, 문선영, 한상희, (2025). 2025 APEC 보건분야 회의 대응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 수정하여 정리한 것임.

- APEC은 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의체로 현재 21개 경제체²⁾가 참여하고 있고, 2024년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37%, 국내총생산(GDP)의 약 59%, 교역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외교부, 2026; APEC, 2024).
 - APEC 참가 자격은 주권국가(country)가 아니라 경제체(economy)로서 ‘국가’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고, 국기 게양도 허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음.³⁾
 - APEC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한국을 포함하여 12개 경제체 간 각료회의로 출범하였으며, 1993년부터는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음.
 - 한국은 1991년 서울에서 제3차 APEC 각료회의를 개최하였고, 2005년 부산에서 제13차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후 20년 만에 2025년 경주에서 제32차 정상회의를 주최함.
 - APEC 회의는 연중 각 분야 각료회의와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되는데, 10월 말쯤 열리는 정상회의가 정점이 되는 구조임. 보건 분야에서는 HWG 회의와 HLMHE가 주요 회의임.
- APEC HWG는 회원경제체의 경제, 무역, 안전에 대한 보건 관련 위험 요인의 영향을 줄이고, 보건 시스템 강화를 통해 효율성·대응력·회복력을 향상시키며,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APEC, 2025a).
 - HWG는 2003년 10월 보건태스크포스(Health Task Force)에서 출발하였는데, 2007년 HWG로 격상된 후 APEC 업무를 보다 광범위한 글로벌 건강 의제에 통합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음.
 - HWG 회의는 APEC 제1차와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 기간 동안 연 2회 개최됨. 이 회의에서는 보건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이 보건 분야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고 새로운 보건 이슈에 대해 논의함.

◆ 이 글에서는 2025년 한국에서 열린 APEC 보건 분야 회의의 성과와 의미를 살펴보고 활용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함.

- 한국은 2025년 두 차례의 HWG 회의와 제15차 HLMHE를 주관하며 전체 일정과 의제를 기획·운영 하였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회원경제체들 간의 논의와 역내 협력 방안 모색을 주도하였음.
-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이라는 보건 분야 주제를 중심으로 연결, 혁신, 번영 세 가지 우선순위에 따라 각 회의의 세부 논의를 위한 의제들을 마련하였음.
- 한국이 현재 APEC HWG 의장경제체를 맡고 있고, 2028년에는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개최하는 등 APEC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회의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가는 시점에 2025년 회의의 성과와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보건 의제 논의를 선도해 가는 데 중요함.

2)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중국, 홍콩, 대만,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칠레, 러시아, 베트남, 페루.

3) APEC은 정치적인 민감성을 최소화하고 경제 중심의 실용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대신 경제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APEC의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경제체 또는 회원경제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02. 2025 APEC 보건 분야 회의의 주요 내용

◆ 두 차례의 HWG 회의에서는 미래 팬데믹, 디지털헬스, 인구변화 대응, 정신건강,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의제가 논의되고 회원경제체 간 협력 방안이 모색되었음.

- 제1차 HWG 회의(2025. 3. 4.~6. 경주)에서는 신종 보건 위협과 팬데믹 대비 및 대응, 디지털 건강, 장애인 건강, 인구변화 대응, 예방접종 등의 주제가 핵심적으로 논의됨.
 - 이 회의에서는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혁신적인 연구개발(R&D) 모델과 신속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는데, 장애인의 건강 향상을 통한 사회 참여 촉진과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협력과 같이 이전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들이 포함됨.
 - 질병관리청 주관 정책 대화(주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에서는 팬데믹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기관의 역할과 역량 강화 방안, 위기 대비 전략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짐.
- 제2차 HWG 회의(2025. 8. 5.~8. 인천)는 두 차례의 정책 대화와 본회의로 구성되어 원헬스⁴⁾, 기후변화, 인공지능, 디지털헬스, 인구구조 변화, 비전염성 질병, 정신건강 등 보건 관련 주제에 대해 회원경제체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지역 내 협력 방안을 모색함.
 - 첫 번째 정책 대화(주제: 원헬스 다분야 협력)에서는 원헬스 접근을 통한 보건 위협 대응을 위해 다부처 및 국경 간 협력, 국제기구와 민간 부문 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음.
 - 두 번째 정책 대화(주제: 디지털헬스)에서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혁신 의료기술 활용 방안과 의료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 확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 본회의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 지원, 임신·출산·생식건강, 비전염성 질병 관리, 암 전주기 통합 관리,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대응, 이상기후에 따른 건강 보호 등의 주제에 대해 상호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한국에서 처음 개최된 제15차 HLMHE(2025. 9. 15.~16. 서울)에서는 인공지능 활용, 건강한 고령화, 청년 정신건강 등 3가지 의제를 논의하였고, 그 결과 장관 공동성명문이 채택되었음.

- 이 회의는 ‘연결, 혁신, 번영: 건강하고 스마트하며 고령화에 대응하는 사회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2025 세계바이오서밋(WBS: World Bio Summit)⁵⁾과 연계하여 개최함.

4) 원헬스(One Health)는 인간, 동물, 환경 건강의 상호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인 접근임. 감염병, 기후변화, 항생제 내성 등 복합적인 보건 위협 대응에 중요한 관점으로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통합 감시체계 강화 등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 활용되고 있음.

5) 세계바이오서밋(WBS)은 2022년부터 우리나라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 주도하에 각국 보건 장관, 국제기구 리더, 백신·바이오 기업 대표, 전문가 등 전 세계 바이오 분야 리더들이 모여 백신·바이오 분야의 글로벌 의제를 논의하는 회의임(보건복지부, 2024).

〈표 1〉 2025 APEC 제15차 보건과경제 고위급회의(HLMHE15) 세션별 주요 논의 내용

세션 주제	주요 논의 내용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보건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로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 및 기여에 대한 공유 • 인공지능 활용의 윤리 및 책임성 원칙, 데이터 공유에 대한 필요성 논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고령화 증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중심의 계속 거주 개념을 중심으로 보건, 주거, 고용, 디지털 접근성 등의 협력 방안 논의 • 예방과 조기진단, 장기 요양, 생활 환경을 아우르는 전환의 필요성 강조
청년 정신건강 증진 및 역량 강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정신건강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필요 • 디지털 기술 활용 및 사회적 낙인 해소 노력의 필요성 논의

주: "2025 APEC 보건분야 회의 대응 연구", 백주하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93의 내용을 정리함.

- 장관 공동성명문에는 인구구조 변화 속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고령화, 디지털헬스 및 인공지능을 통한 보건 시스템 전환, 지역사회 기반 일차보건의료 강화, 포괄적인 암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환경 변화 및 미래 감염병 대비 다분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음(APEC, 2025b).

〈표 2〉 2025 APEC 제15차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HLMHE15) 공동성명문의 주요 내용

주제	주요 내용
인구구조 변화 속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고령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태 지역의 저출생 및 급속한 인구 고령화 문제 인식 • 고령자의 사회, 경제 참여 활성화 정책 강화 • 보건, 고용, 재정, 디지털 혁신을 아우르는 범부처 전략 지원
지속가능한 보건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람을 위한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 접근성 보장 • 보건 시스템의 효율성, 투명성, 회복력 강화 • 디지털 솔루션과 민관 파트너십 활용
디지털헬스와 인공지능을 통한 보건 시스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과 디지털헬스 기술의 혁신적 잠재력 인정 • 디지털헬스 도구 접근성 확대 및 역량 강화 • 의료 인력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준수하에 건강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
지역사회 기반 일차보건의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사회에서 통합적인 지역사회 기반의 일차보건의료 서비스 우선순위 설정 • 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을 통합한 환자 중심의 연속 돌봄 체계 구축 • 돌봄 취약계층의 지역사회 내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서비스 확대
회복력 있고 효율적인 의료 공급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기기,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료제품의 원활한 공급 촉진 • 공급원 다변화 및 공급망 인프라 강화 • 디지털헬스 플랫폼의 상호운용성 및 비상 대응 계획 강조 • 혁신 가속화,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 암 관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 예방, 검진, 진단, 치료, 완화의료의 통합적 접근 재확인 • 자궁경부암 퇴치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공동 노력 지원 • 여성과 소녀의 건강 형평성 증진
정신건강 및 웰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건강을 건강한 인구와 경제 회복력의 필수 요소로 인식 •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보장 •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낙인 감소, 조기 개입 투자
환경 도전에 대한 보건 체계의 회복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한 기후 변동성과 자연재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식 • 취약계층 중심의 환경-건강 통합 전략 추진 • 감염병 및 비감염성 질환의 패턴 변화 대응과 국제적·다부문 협력 장려
미래 공중보건 위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다부문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동물-식물 건강과 환경의 상호 의존성 인식 • 다부문 감시 시스템 및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 국경 간 협력, 다부문 조정, 공동 위험 소통, 연구 협력 강화
지역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보건실무그룹(HWG) 및 하위 실무그룹을 통한 지속적 협력 • ASEAN, PIF, PECC 등 지역 파트너들과의 협력 환영

주: 저자가 HLMHE15 공동성명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표 3〉 2025 APEC 보건분야 회의의 논의 주제

구분	키워드	주제
연결	보건 위협 대응	새로운 보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보건 의료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투자
	보건 위협 대응	팬데믹 대비 대응
	보건 위협 대응	공중보건 비상 대비 및 대응 시스템
	보건 위협 대응	국가 공중보건 기관의 역량 강화 지원
	원헬스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부문 간 역할
	원헬스	원헬스 부처 및 국경 간 협력 및 소통
	원헬스	원헬스 역량 강화 사례
	원헬스	원헬스 실행전략 및 계획 공유
	기후변화	이상기후 건강 보호 및 형평성
혁신	디지털헬스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디지털헬스
	인공지능	인공지능 및 디지털 혁신 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
	디지털헬스	디지털 의료협력 및 본인 주도적 맞춤 건강관리
	디지털 전환	원활한 보건 의료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추진 체계
	디지털헬스	디지털헬스 하위 실무그룹 정책 대화
	인공지능	인공지능 활용한 미래 준비 보건 시스템 구축
번영	장애인 건강	장애인 건강 증진을 통한 사회 참여 활성화
	인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자원 조달 전략 및 방법
	인구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대응
	예방접종	생애주기 예방접종
	인구, 의료체계	지역 완결형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인구(고령화)	지역사회 중심 의료·돌봄 통합 지원 강화
	인구(저출생)	임신·출산·생식건강 지원 정책
	인구, 만성질환	고령화 사회 대응 만성질환 관리 체계 고도화
	암 관리	암 전 주기 통합관리
	정신건강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
	인구(고령화)	건강하고 활력 있는 고령화 증진 방안
	정신건강	청년 정신건강 증진 및 역량 강화 방안

주: "2025 APEC 보건분야 회의 대응 연구", 백주하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95의 〈표 8-1〉 일부를 인용함.

03. 2025 APEC 보건분야 회의의 주요 성과 및 의미

◆ 한국은 2025 APEC 보건 분야 회의의 개최경제체로서 두 차례의 HWG 회의와 제15차 HLMHE에서 모든 의제를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했으며, 국제적인 공감대 및 지지를 이끌어 냄.

- 한국은 감염병 대응, 정신건강, 디지털헬스 등 기존에 APEC HWG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제들을 포괄하고 발전시키면서도 인공지능 활용과 협력, 인구구조 변화, 장애인 건강 등 새로운 의제들을 제시하고 논의를 이끌어 감으로써 APEC 내 보건 의제를 다각화하고 심화시킴.
- 의제 기획과 논의 주도를 통해 한국이 단순히 참여하는 경제체를 넘어 어젠다를 주도하는 경제체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되었으며, 글로벌 보건 이슈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 의지 표명으로 국제 보건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발현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됨.

◆ **한국 정부의 리더십과 주도하에 HLMHE15에서 한 해 동안의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문이 채택된 것은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임. 이는 향후 APEC 내 활동과 프로젝트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반이 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물로 평가됨.**

- 인공지능 활용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라는 2025 APEC 핵심 의제를 반영하는 등 한국이 주도한 의제들이 APEC HWG의 공식적인 정책 의제로 승격되었음. 선언문에서 필수 보건의료 기술을 공공재로 인식하고 연구개발부터 접근성까지 전 주기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등 한국의 독자적인 가치와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였음.
- 공동성명문 채택에는 모든 회원경제체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주도적으로 회원경제체 간의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조정해 나가며 합의를 이끌어 냈음. 이는 한국이 가진 국제사회에서의 조정 능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음.

◆ **한국은 2025 APEC 보건 분야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공동성명문 합의를 이끌어 낸 성과를 바탕으로 HWG 의장직에 출마하여 회원경제체들의 지지 속에 의장경제체로 선출되었음.**

- 2026~2027년 APEC HWG의 리더로서 지역 내 주요 보건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며 공동의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
- 의장직 선출은 공동성명문이라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실행 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성과로 평가됨. 앞으로 APEC HWG 내 구체적인 협력 사업과 정책으로 연결하고 한국의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확보하였음.

◆ **이번 회의 개최는 회원경제체 및 국제기구와의 양자 및 다자 간 보건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음. WBS와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었음.**

- 국내 정책 담당자, 의료기관 및 학계 전문가, 민간기업 관계자를 포함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의 국제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APEC 회원경제체,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네트워킹하는 기회가 되어 보건정책 수립과 해외 진출 시 활용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HLMHE15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WBS와 연계함으로써 두 국제회의 참가자들의 교류 및 네트워킹의 폭이 넓어졌으며, 이를 통해 국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기회가 되었음.

◆ **이번 회의에서는 세션마다 한국의 정책 사례, 국내 민관 협력의 성공 경험과 기업들의 혁신 사례 등을 공유 하였는데, 보건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강점과 사례가 주목받는 계기가 되었음.**

-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표적인 국내 민간기업들의 인공지능 활용 혁신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향후 지역 내 디지털헬스와 인공지능 활용 영역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음.

04. 향후 활용 방향에 대한 제언

◆ APEC HWG 의장경제체로서 이번 HWG 회의에서 논의되고 공동성명문에 포함된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HWG 의장경제체 역할을 맡는 동안 APEC 사무국, 개최경제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같이 한국이 이번 회의에서 제시했던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구체화하고, 초고령 사회 대응과 기후변화 등 미래 보건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회원경제체 간 협력에서 한국의 기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APEC HWG 내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신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관심을 표명하는 회원경제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발전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26년 수립될 예정인 APEC HWG의 '2026-2030 APEC 전략계획'⁶⁾에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와 공동성명문에 포함된 내용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기존 APEC 전략계획에 포함되었던 주제들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동시에 이번에 새롭게 제시되고 논의된 의제들을 전략적이고 주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 구체적으로, 전략계획에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인공지능 활용,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 포괄적인 암 관리 등과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정신건강, 보건의료 공급망, 환경보건, 미래 공중보건 위기 상황 대응의 내용들은 기존 문서에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공동선언문에 제시된 내용들을 발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향후 APEC 회의에서 한국이 가진 강점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들의 연계를 통해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 2025년 APEC 회의에서 논의한 주제들은 대부분 현 정부의 핵심 정책들과도 연관되는데, 특히 보건의료 인공지능 활용, 인구변화 대응,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제, 정신건강 등의 의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있는 주제임.
 - 향후 APEC 회의에서 이러한 주제와 관련된 한국의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회원경제체 간 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끌 필요가 있음.
 -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을 국가 핵심 성장전략으로 설정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혁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기반으로 보건의료 인공지능 활용 관련 의제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APEC 내 협력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6) 'APEC 전략계획(Health Strategic Plan)'은 회원경제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보건을 통한 무역·안보·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중기(5년) 전략 로드맵임. Health Asia Pacific 2020 및 후속 문서인 North Star 2030 전략과 연계됨.

- 한국의 강점 중 하나는 감염병 분야의 백신 및 진단기기 개발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가 R&D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초기 투자를 주도하고 조달 및 활용에서도 공공성을 유지하는 독자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APEC HWG 내 협력으로 발전시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APEC 지역의 공통 부담 질병들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협력에 관심이 높은 회원경제체들과 R&D 국제협력력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음.
- 또한 한국은 2022년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GTH-B)’⁷⁾를 유치한 이후 현재까지 중·저소득 경제체의 백신·바이오의약품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통해 전 세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25).
 - 향후 APEC 회의에서 역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증진 방안으로 GTH-B의 활동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회원경제체와의 연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며, APEC 회원경제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펀딩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이번 회의에 참여했던 국내외 전문가들과 관련 기관 및 민간기업들을 영역별로 목록화하여 향후 여러 국제회의의 참여를 촉진하며 분야별 인적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제안함.

- 특히 2025 APEC 회의에 국내 주요 민간기업들이 참여했던 것과 같이 향후에도 이러한 기업들이 참여하여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고 회원경제체 및 타 기업, 국제기구와의 글로벌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기회를 확대해 가는 것이 필요함.
- APEC 회의뿐 아니라 2028년 G20 회의 등 한국이 주최할 예정이거나 주도하는 국제회의에서 보건 의제 설정과 세션 구성 시 기존에 형성해 놓은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백주하, 박나영, 김은정, 신지영, 박수정, 문선영, 한상희. (2025). **2025 APEC 보건분야 회의 대응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25. 10. 27.)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2025년 백신·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기본교육 실시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synap/doc.html?fn=202510241707319931.hwpx&rs=/upload/result/202603/>

보건복지부. (2024. 11. 11.) **전세계 바이오 리더, 안전하고 건강한 인류의 미래를 위한 혁신과 투자 방안 논의**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synap/doc.html?fn=202411110816403561.hwpx&rs=/upload/result/202603/>

외교부. (202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요**. https://www.mofa.go.kr/www/wpge/m_3901/contents.do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2024). *StatsAPEC Database*. <http://statistics.apec.org>.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2025a, September). *Health*. <https://www.apec.org/what-we-do/some-steering-committee-on-economic-and-technical-cooperation/health/overview—health>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2025b, September 16). *2025 APEC High-Level Meeting on Health and the Economy*. <https://www.apec.org/meeting-papers/sectoral-ministerial-meetings/health/2025-apec-high-level-meeting-on-health-and-the-economy>

7)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GTH-B: Global Training Hub for Biomanufacturing)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의 우수한 생산 기술과 교육 시설을 바탕으로 중·저소득국 백신·바이오 의약품 인력 양성을 통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지정하였으며, 매년 1000명 이상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집필 백주하 (건강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 044-287-8221